환경교육

고지대경관거점해설 -수유지구 (대성문 경관 해설판)

활동장소	진달래능선 경관 해설판 앞
소요시간	30분
참가대상	일반인
참가인원	10명/해설사1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 진달래능선에서 감상하는 북한산
준비물	• 경관 해설판
유의사항	• 북한산에 있는 문화재를 소중히 하고 훼손하지 않는다. •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북한산에 오게 된 과정 듣기 – 안전교육(등산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활동)	• **북한산 소개** • **진달래능선 소개** • **진달래능선에서 바라본 경관이야기**	2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마무리 인사	5분

시나리오	인사

안녕하세요. 북한산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OOO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기분이네요.

북한산 소개

오늘 여러분은 서울 근교에서 가장 멋있는 산에 오셨습니다. 바로 북한산국립공원이지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76.922㎢로 우이령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도봉산 지역, 남쪽으로는 북한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화강암 지반이 침식되고 오랜 세월 풍화되면서 곳곳에 깎아지른 바위봉우리와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계곡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가 위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 문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달래능선 소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진달래능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최고의 봉우리들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이고,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는 화려한 능선의 모습으로 많은 탐방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능선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개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진달래꽃을 드셔본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달래와 철쭉 어떻게 구별할까요? 개화시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4월 중순에 꽃이 먼저 피기 시작하며 잎은 나중에 꽃이 진 후에 나옵니다. 반면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을 나중에 피운답니다. 꽃이 없으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잎의 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의 잎은 문지르면 솔 향이 나는데 철쭉은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옛 생각에 진달래를 먹어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철쭉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마비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니 예쁜 꽃은 입보다는 두 눈에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진달래능선에서 바라본 경관 이야기

눈앞에 멋진 봉우리들이 보이나요? 오른쪽의 큰 암봉이 해발 810m의 '인수봉'입니다.

인수봉은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오래 산다.'라는 뜻인 '인자요산 인자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의 인수봉의 모습은 우리나

라 역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고려 예종 원년(1106년)에 두 차례의 지진과 조선 선조 30년(1597년)에 한차례의 커다란 지진으로 인수봉이 무너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가 '백운대'입니다. 해발 836.5m로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백운대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잠구시' 중 '백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백운대는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시키고자 일제에 의해 쇠말뚝을 박아 놓았던 장소이기도 하며, 독립운동가 정제용 선생이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얼리고자 일본의 눈을 피해 바위 바닥에 독립선언에 대한 기록을 새겨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만 가지의 풍경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만경대'입니다. 해발 799m이며,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왕사 무학대사와 올라와 도읍을 정했다 하여 국망봉 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산은 백운대-인수봉-만경대 세 봉우리가 세 개의 뿔과 같이 장엄하게 서 있다고 하여 삼각산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인수봉과 만경대는 추락위험지구로 장비를 착용하여야 오를 수 있는 출입제한구역입니다.

북한산에는 이 세 봉우리 이외에도 20여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암봉으로 형성된 능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체로 서쪽의 계곡이 경사가 습하고 길며, 수량도 풍부하여 경관이 수려합니다. 또한 진흥왕순수비를 비롯하여 사적 및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서부터 대동문까지 가는 길은 멋진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북한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주시고요,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탐방로 주요지점에 250m~500m 간격으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상황 발생 시 위치 변화와 상황을 신고하면 구조대가 즉시 출동하니 꼭 기억하세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시는 입장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감상하면서 안전하고 무리 없는 탐방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